

2024년 6월 30일(주일) 제1689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는 영·유아부를 제외하고 연합수련회로 개최합니다. 기간과 장소는 7월 25일(목)-27일(토) 가평에 소재한 서울교회 아가페타운입니다. 교육위원회(위원장:오윤걸 장로)는 교회학교가 다 함께 찬양하며 뛰놀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 뜨겁게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7월 14일-8월 11일, 오후 12:20, 802호

서울교회 의료선교회(회장:이종욱 안수집사)에서는 2024년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일 교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

에게 건강이 허락되고 지켜가는데에 도움이 되며,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로선택의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 짜	담당	주제
7월 14일	 이승아 성도 (심장내과)	실버 건강과 심장질환
7월 21일	 이지영 성도 (정신건강의학과)	우울하고 불안한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7월 28일	 정영규 성도 (소화기내과)	TV에 나오는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8월 4일	 범민선 성도 (심장혈관흉부외과)	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8월 11일	 박은진 집사 (치과)	씹는 힘, 치매를 예방한다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호산나찬양대 대원 모집



수요 1부 찬양을 담당하는 호산나찬양대(대장:정승자 권사)에서 함께 할 찬양대원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교역자 하복 착용

흑서기를 맞아 7월 1일(월)부터 교역자들은 목사복 반팔 하복을 착용합니다.

70인전도대 방학

70인전도대(대장:김지수 안수집사)는 흑서기를 맞아 7월 17일(수)부터 8월 28일(수)까지 방학합니다.

다락방 리더 훈련 방학

다락방 리더 훈련이 7월 10일(수) 종강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기간 동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다락방원들을 잘 돌아보시고, 유고시에 즉시 교구목사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요 6:1-15



손달익 위임목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장에 있는 먹거리가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임을 아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배고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긍휼

이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등과 함께 요 6장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한결 같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5절). 주님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의 순교 직후였습니다. (마 14:13)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었는데 그런 그가 간악한 여자의 계교로 목이 달아나자 백성들의 허전함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분노하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셨고 날이 저물자 그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허탈한 마음을 안고 모여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막 6:34) 사람들을 둘러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제의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가진 것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긍휼의 심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 8:3).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구태여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금기사항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낮게 하실 수 있으신데도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상실당하고 살아야 하는 이 환자의 모진 삶에 대한 주님의 연민과 긍휼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은혜도 주십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도다”(롬 10:12). 한 분이 주신 긍휼의 은혜가 모두를 만족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모두에게 선한 일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나의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한 문제 해결의 길은 주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살고, 나도 긍휼을 삶의 덕목으로 실천하고 살면 오천 명을 만족케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 현재의 은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2.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나누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

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조각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모두가 풍족하게 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낭비를 삼가야 하는 절약의 정신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절약의 정신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비를 해야 하지만 헛된 낭비는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도 되지만 광야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최대한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잠 21:20). 과소비와 낭비는 미련한 자의 행위입니다. 칼뱅은 근면, 절약, 구제를 매우 중요한 경제생활의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만들고, 사용을 절제해서 축적하고, 그것으로 구제와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칼뱅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줄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희망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심각한 지구촌 문제인 생태문제와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소비와 낭비는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태위기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과식과 탐식을 줄이는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전등 하나 줄이는 운동이 전기요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의 문제인 것처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미래생존 지침이기도 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는 광야에 오천 명의 잔치와 열두 바구니의 축복이 이어지고 이 열두 바구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3.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광야의 기적은 또 다른 의미로 반전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주님은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26-27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은 단순히 한 끼 양식을 주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더 귀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님은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은 Miraculous signs 즉, 상징적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소동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14-15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시는 것에 주님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통해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라는 권고를 거절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셨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 살과 피를 대속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려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인 자기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대가 즐겁게 참여한 기도의 향연



현종필 목사
(2024 흥해작전 지도교역자)

‘2024 흥해작전’이 지난 주일 저녁 ‘흥해작전 감사예배’를 끝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선포하던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시작한 ‘2024 흥해작전’은 현장예배 참석 누적인원 4,051명, 온라인 예배 참석은 973명, 마지막 날인 22일 현장 출석이 421

명, 온라인 예배는 5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드린 공동기도와 예배들은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주의 보좌 앞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믿음의 역사를 힘차게 열어갈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



의 이정표가 되어, 주 따라 가는 길의 방향을 잡아주고 기준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매년 흥해작전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은혜를 넘치도록 가득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좀더 젊은 세대들과 흥해작전을 공감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즐겁게 기도의 향연에 참여하고, 함

께 기도의 힘을 모으며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의 모든 흥해작전은 교회 역사의 굵이 굵이에 큰 디딤돌처럼 놓여져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경을 넓혀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2024년에도 검푸른 흥해 바다같은 인생의 큰 장애물을 기도로 넘어가게 하시고, 다시 복된 비전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등불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따라갑시다.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아낌없이 수고하여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이승준 안수집사



복적~복적~ 싱글~빙글 홍해작전!



한세희(초등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한세희입니다.

저는 홍해작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학교에 안 가는 날이라 홍해작전에 갔는데 유년부 동생을 만나서 좋았어요. 유년부 동생과 함께 아침도 같이 먹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아침도 먹는게

즐거워 계속 나갔어요.

이번 홍해작전에 사람이 많아서 좋았어요. 내년에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복적복적 싱글빙글인 서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같이 홍해를 건너보아요.

모든 것이 좋았던 홍해작전



최은성(유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3학년 최은성입니다.

먼저 2024년 홍해작전을 잘 건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번 홍해작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기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일어나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친구들, 가

족과 함께 라면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출석 스티커를 주셔서 모으는 즐거움도 있었고, 홍해장터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출석해 홍해장터에서 많은 선물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민 말고 홍해작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방 관리 및 사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8층 주방은 가스와 불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방 기구와 식자재 등 관리가 필요한 특수한 장소입니다.

주방 관리자 부재 시 인사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이 없으며, 형사책임까지도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 이후 치료비를 포함한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도 발생합니다.

이에 위험한 상황 발생을 차단하고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 사용에 관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주방 사용 개선 방법>

1. 교구를 비롯한 모든 부서는 주방을 사용하는 모임 또는 행사가 계획될 경우 사전에 주방 관리자와 협의하여 주방 사용에 대한 계획서(사무국 비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가스와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방 관리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방 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모임 책임자가 주방 관리자로부터 가스사용 등 안전교육을 받고 모든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스와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주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방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방 관리 책임자

주방 관리 책임자는 정 사무국장, 부 주방 관리자로 선임하고, 주방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2024 홍해작전 4행시 당선작

사랑상:박진주 권사(2교구) 56표

담:담담히, 그러나 담대히 기도합니다.
 임:임금되신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청:청렴하고 순전함으로 무장되신
 빙:빙벽 앞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목회자를 보내 주소서

믿음상:유하민(유년부 2) 38표

홍:홍해를 건너 보셨나요?
 해:해햇~ 전 건너 봤어요
 작:작은 길이지만
 전:전 갈 수 있어요~! ^^

소망상:박수옥 권사(7교구) 37표

홍:홍해를 건너보니
 해: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니
 전: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행시 전교인 투표 현장

11강:중보자의 조건(2)

18문:그러나 누가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 -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하나님이신 동시에 참인간이신 분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생략되었습니다. “과연 있기는 할까요?”라는 질문은 “있다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누가 그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를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유대 전통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참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이기는 했지만, 참하나님이신 동시에 참인간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구분되는 특

특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기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4-9)은 “이스라엘 아 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특성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유일신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유대교의 신관에서 보면, 중보자이자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 땅을 해방시킬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30)고 말씀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고 구조 안에서는 메시아가 “사람”일 뿐이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 유대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하나님이자 참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만 참하나님이자 참인간이 아니라 자신도 참하나님이자 참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습니다. “누가”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인가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19문: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써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나님이시고 참인간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완성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의 시작은 낙원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하신 구원의 말씀, 곧 원시복음입니다.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죄를 없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참하나님이시며 참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으며,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온전히 지셨기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요약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리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배운 내용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하나님이시면서 참인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야 하고, 둘째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하며, 셋째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인간인 동시에 참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짊어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 전시회: 8교구 유은경 집사
'상징-증강현실로 만나는 우리 그림'
6월 20일(목)-30일(주일)
북촌한옥 작은쉼터 갤러리

식사 제공

- 호산나학교 부모회
(교회에 감사드리며)

핀옥수수 제공

- 사랑부 교사 일동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6월, 7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6.30	자원자	스데반회	7.3	도르가, 루디아, 뵈뵈
7.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7.10	마리아
7.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7.17	방학
7.21	방학		7.24	방학
7.28	방학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7월1일	월	시 96-102	수3	시126-128	사63	마11
7월2일	화	시 103-105	수4	시129-131	사64	마12
7월3일	수	시 106-107	수5,6:1-5	시132-134	사65	마13
7월4일	목	시 108-112	수6:6-27	시135,136	사66	마14
7월5일	금	시 113-118	수7	시137-138	렘1	마15
7월6일	토	시 119:1-80	수8	시139	렘2	마16
7월7일	주일	시 119:81-176	수9	시140,141	렘3	마17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해외선교지, 비전2030 군선교지, 70인전도대의 전도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피택자들이 사랑과 섬김의 영성으로 구비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선교지와 교회에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